



2023년 4월 제3호

월간 KOCHAM

월간 KOCHAM 정보

발행처 브라질 한국상공회의소 (KOCHAM)

발행인 김승주 회장

편집인 KOCHAM 사무국

발행일 2023년 4월 6일

홈페이지 kochambr.com

이메일 info@kochambr.com

주소 Alameda Santos 700, Andar 8, Cerqueira Cesar, São Paulo, SP,
CEP: 01418-100

목차

1. 코참 활동
2. 회원사 탐방
3. 공관 및 교민 소식

코참 활동

제104주년 3·1절 기념식 참석



김수한 코참 부회장은 3월 1일(수) 한인타운 Bom Retiro에서 열린 제 104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권명호 한인회장, 황인상 총영사, 김요준 평통 회장, 조복자 노인회장, 고우석 한인타운발전회장, 박대근 한브장학회장, 신일주 교육원장, 전옥희 한인미술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출처: 좋은아침)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상파울루 지사 개소식 참석



김승주 코참 회장은 3월 10일(금) 빠울리스타 대로에 위치한 한국식품유통공사 상파울루 지사 사무실에서 열린 개소식에 참석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황인상 주상파울루 총영사, 코납(Conab, 브라질 농산물공급공사) 상파울루의 헤나따 모라이지 비센치 까마르고 지사장, 하윤상 중남미한국식품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아르헨티나, 페루 등 K-푸드 수입바이어와 유통업체 관계자 등이 다수 참석했다. (출처: 좋은아침)

코참 활동

운영위원회 개최



코참 운영위원회가 3월 28일(화)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화상회의를 통해 개최되었다. 김승주 코참 회장을 비롯해 배준석, 김수한 부회장, 이병림 의료제약분과 위원장, 유건영 감사, 최태훈 고문이 참석, 상반기 행사 개최 일정과 신규 운영위원 위촉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된 주요 안건은 아래와 같다.

1. 코참 골프대회 : 6월 3일(토)
2. 신규 분과 개설: 법률분과, 금융분과, IT분과
3. KBF 발행 포맷 일부 변경

공급망, 수출/수주 협의회 참석

코참의 김승주 회장은 3월 31일(금)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화상회의로 열린 공급망, 수출/수주 협의회에 참석했다.

대사관에서는 금년 2월에 신규 부임한 공성호 상무관을 비롯해 총 4명이 참석했으며, 코트라, 수은, 무보, AT, 코참 등 5개 기관과 현대로템, CJ, 효성 등 3개 기업이 참석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공급망 환경 및 투자, 금융, 산업 동향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기업별 애로사항에 대한 공유 순서로 회의가 진행되었다.

본 회의는 2022년 1월부터 대사관 주관으로 매월 진행되는 회의로, 공급망 이슈 및 공관과 기업 간 의사소통의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

회원사 탐방

현대로템 박수완 법인장



1. 회사 소개 간략히 부탁드립니다.

현대로템 브라질은 브라질 철도차량 시장 점유율 3위를 차지하고 있고, 메트로/교외선/트램/중고속 등 다양한 철도차량을 제작할 수 있는 종합 철도차량 회사입니다.

2014년 법인 설립 이후, 상파울루주 아라라파라시에 2016년 조립공장 준공하여 상파울루와 살바도르에 현지제작 차량을 납품한 바 있습니다. 차량 제작 외에 유지보수, 개조, 유지보수 부품 공급 등의 부대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브라질에서 어려웠던 점이나 그것을 극복한 사례가 있을까요?

브라질 현지생산 사업 초기 컨소시엄 멤버의 갑작스런 파산으로 현지 공장 설립, 각종 세무 및 수입 절차 수행 등 예상하지 못했던 책임 범위를 떠맡게 되었습니다.

여러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각종 세제 혜택을 이끌어내고 절세 방안도 모색하여 상당한 손실 만회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현재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세무, 수출입을 관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누적된 세금 크레딧을 현금 환급받는 절차도 진행하여 법인 운영 상황을 개선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3. 올해 특별히 계획하시는 사업이 있나요?

2015년에서 2020년까지 브라질에 신규 발주 철도사업이 전무하여 많은 철도업계 관계 업체들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었습니다. 그 이후 민자사업으로 사업 형태가 전환되며 다시 철도사업 발주가 시작되었고, 최근에는 전/현임 주지사의 중점 사업인 상파울루-캄피나스 인터시티 철도사업의 입찰 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 정부와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업인 만큼 현대로템도 좋은 결과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4. 코참에 대한 기대나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요?

코참은 다양한 진출 기업 간 관계를 맺어주고 이어주는 어렵지만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기업으로부터 다양한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듣게 될 텐데, 생각지 못하게 이웃 기업에서 해결방법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코참의 네트워크로 진출 기업 간의 노하우 전수와 상호 정보교환이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합니다.

회원사 탐방

스타클러스터 김도형 대표



1. 회사 소개 간략히 부탁드립니다.

스타클러스터 브라질은 복합운송주선업자로서 2012년 11월 산투스에 브라질 법인을 최초 설립하였으며 현대글로벌비스 협력사로서 현대자동차 및 계열사,벤더사들의 수출,수입물류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2016년도에 상파울로 지점을 오픈하고 글로벌비스 협력사 일 외에도 자체 물류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커피,설탕,자동차 부품 등을 한국 및 기타 국가로 보내고 있으며 식품, 기계, 화학제품 등을 수입통관 및 운송하고 있습니다.

2. 올해 브라질에서 어려운 점이 무엇일까요?

최초 브라질 법인을 설립했을 당시에 본사 역시 그 성공을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최초 자본금을 10만불로 제한하였고 그로 인해 초창기에 자본 압박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하지만 첫 1년 동안 흑자를 내면서 브라질 법인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본사에 확신 시켜주면서 추가 자본금을 받을 수 있었고 보다 안정적으로 법인을 꾸려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3년, 2014년도에 특히 항만파업, 운송파업 등이 많이 발생하였는데 최대한 고객사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매일 밤 늦게까지 이리 뛰고 저리 뛴 것 같습니다.

그 경험들이 모여서 지금은 어떤 상황속에서도 바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갖게 되었고 스타클러스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들의 만족도 역시 상당히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3. 올해 특별히 계획하시는 사업이 있나요?

매년 브라질에서의 생존을 목표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왔는데 올해 2023년도에는 새로운 파트너를 100개 이상 개발하는 것, 특히 중남미 로컬 물류사들의 연합회를 만들어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객사,파트너가 모두 win-win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브라질 비즈니스에 집중되어 있는 현재 구조를 다각화하는 것도 2023년도를 그 첫해로 정했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4. 코참에 대한 기대나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요?

브라질에 있는 모든 한국인 기업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서로가 상호협력 및 공생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길 바라오며 지금까지 해 오신 것처럼 언제나 한국인 기업들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코참을 바랍니다.

공관 및 교민 소식

문화 중심지 빠울리스타 대로에서 펼쳐진 한복 퍼레이드



3월12일(일) 브라질 한인 이민 60주년을 기념하여 브라질 상파울로시의 문화 중심지인 빠울리스타 대로에서 '한복 퍼레이드'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이날 행사는 브라질에연과 문화원이 공동으로 준비했다. 왕과 왕비 의상과 전통 한복은 물론 개량 한복 등 각양각색의 한복을 입은 참가자들은 사물놀이 '새 울림'패의 인솔에 따라 빠울리스타 대로 약 2km를 행진했다. (출처: 한인투데이)



상파울루 '김치의 날' 제정 추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김춘진 사장은 12일 상파울루시의 아우렐리오 노무라 의원 등과 함께 '상파울루시 김치의 날 제정' 추진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노무라 의원 외에 브라질 한인회 권명호 회장, 중남미 한국식품연합회 하윤상 회장 등이 참여해 상파울루시 김치의 날 제정 추진을 함께 선언함으로써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김치의 날' 제정이 남미까지 확산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치의 날(11/22)은 김치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고자 2020년 국내에서 제정된 법정기념일로, 21년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22년 버지니아주, 뉴욕주, 워싱턴D.C에서 주 공식기념일로 제정되며 한국이 김치 중주국임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출처: 좋은아침)

코참 활동
회원사 탐방
공관 및 교민 소식
한복 퍼레이드 개최
김치의 날 제정 추진
이노스페이스 로켓 발사성공
미술가 양혜규, 첫 개인전

공관 및 교민 소식

이노스페이스, 로켓 시험 발사 성공



19일 오후 2시 52분 마라냥주 알칸타라(아우칸타라) 발사센터에서 '한빛-TLV'가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한빛-TLV는 이노스페이스에서 독자 개발한 하이브리드 엔진 검증용 시험 발사체다. 한빛-TLV에 자체 개발한 탑재체 '시스나브'(관성항법 시스템)를 실었던 브라질 공군은 "이노스페이스와의 파트너십 결과에 매우 만족한다"며 "우주 기술 개발과 로켓 발사라는 국가적 역량을 모두에게 보여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알칸타라 센터 운영 주체이기도 한 브라질 공군에 따르면 외국 민간 기업과 함께 시험발사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때문에 공군은 "이번 발사로 우리는 패러다임을 깨고 로켓을 상업 발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자축하기도 했다. (출처: 좋은아침)

현대미술가 양혜규, 상파울루 Pinacoteca에서 첫 개인전



현대미술가 양혜규 (프랑크푸르트 국립미술학교 슈테델슐레 교수)가 브라질 상파울루 피나코테카 미술관(Pinacoteca de São Paulo)에서 남미 최초 대규모 개인전을 열었다.

'의사擬似-구어체Quasi-Colloquial'를 타이틀로 지난 3월 4일 개막한 전시는 피나코테카 미술관의 신관 피나코테카 컨템포라네아의 개관을 기념한 전시이기도 하다.

양혜규는 이번 브라질 첫 개인전에 모더니즘과 토착문화라는 브라질 문화의 대조적인 전통을 두 중심축으로 밀도 있는 개념적, 문화적 연구에 기반한 총 다섯 종류의 작업군을 소개한다. 전시는 5월28일까지 이어진다. (출처: 좋은아침)